

## 思想과 自然科學(二)

金容權

예를 들면 物理學의 基礎原理속에는 神의 永遠性을 象徵할 수 있는 恒存原理가 서서 있는 바와 같은 것, 또 占星術외에 鍊金術과 然素說 등이 꽤 오래도록 내려오던 것과 같은 것도 이것이다. 如何間 古代에 있어서는 思想이 이처럼 優先的 地位를 獨占하고 있어서 그것이 自從科學까지도 스스로 權威下에 追從케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時代에 있어서는 自然科學이 그 正當한 形體에서가 아니고 도로혀 움츠러진 形而上學的 自然科學으로서만 成立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後代에 와서는 이 事情은 뒤집혀졌다. 卽 自然科學은 여러 가지 既成思想의 羈絆을 떠나 그것의 獨自의 길을 밟아 나아간 것이다. 自然에 있어서의 偶然한 事實이 이것을 强要하고 또 可能하게 하도록 하여준 것이다. 『가리레-』의 有名한 이야기 『그러나 地球는 돌고 있다』라 한 그 말이 이 方向을 指示하는 最初의 宣言이었다고 하여도 조할 것이다. 그래서 自然科學이 그 놀날 만한 成果를 顯著하게 蓄積하여 감을 따라 思想이 도로혀 그 發達이 要하는 養分을 새로운 自然科學的 經驗에 求得하지 아니치 못할 狀態에까지 到達한 것이다. 여기에서 自然科學의 偉大한 原動力이 認定되지 아니치 못한다. 實用하기 爲해야만 自然科學을 말하는 사람은 이 點에 眼目を 움기는 바에 依하여 必竟은 새로운 驚愕을 禁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페르니키스』와 『가리레-』를 지내어 『케프라-』가 所謂 『假說을 가지지 아니한 天文學』을 建設함에 依하여 古代의 □學的 思想이 그것에서 除去하게 된 後에도 오히려 自然科學이 그 完全한 勝利를 獲得하기까지에는 長久한 年月을 要한것이다. 더군다나 만흔 境遇에 自然科學的 知識이 思想속에 드러가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바른 範圍로 限定되지 아니 하였든지 或은 正當한 意味에서 適用되지 아니 하였든지 하였음에 依하여 그 사이에 여러 가지 混亂이 보이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러한 事情은 오늘날에도 오히려 얼마든지 存在하다. 이 일은 一面으로보면 或은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恒常 實證的 事實에 依하여 그 歸結이 極히 嚴密하게 檢討됨에 反하여 思想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느 主張을 強調함에 利用할 수가 있으면 充分하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써이다. 그러나 一層 確實하게 하며 또 이것을 偉大하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서 그러치 아니한 境遇에는 함부루 그것의 破綻을 빠르게 하는데에 그치리라고도 생각한다.

古來의 思想史 上으로 볼지라도 唯物論的 又は 唯心論的 對立은 가장 根本的인 것이었었다. 自然科學의 發達이 于先 物質現象에서 顯著하며 生命現象의 研究와 같은 것도 한가지로 物質現象에 對한 그 方法을 그대로 採用한 生物學에서 비롯하지 아니치 못하였던 事實 等に 依하여 近代의 唯物論은 巧妙하게 이것을 利用하여 스스로의 主張을 正當化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自然科學은 當然히 唯物論을 歸納하는 것과 같은 觀念을 여러 사람에게 가지도록 함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비록 生物體가 純粹하게 物質에서 構成되어 있음이 確實한 自然科學的 事實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까닭에 그러한 物質組織 上에 다른 物質에 關한 것과는 다른 特殊한 生命現象이 表現되느냐고 하는 理由를 明白히 하지 아니하여서는 그것은 決코 自然科學的 理論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依然히 未知의 前提 下에 主張되는 非實證的 言說에 지내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意味에서 亦是 一個 形而上學的 思想에 不過하는 것이다.

다시 一方으로는 物理學에서 여러 가지 現象에 對한 力學的의 說明이 漸次 成功하고 所謂 力學的 自然觀이란 것의 形成의 可能性까지도 思考됨에 當하여 物質現象以外의 것의 適用이 所謂 機械論의 名稱 下에 되며 이것이 다시 唯物論과 結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現象을 機械的으로 證明하기 困難한 바는 容易하게 明瞭하여진 것이니 特히 生命現象과 같은 것은 機械論的 說明을 可能케 함에는 너무 複雜한 바는 勿論으로서 近代의 唯物論에 있어서는 도리어 그러한 機械論을 排斥하게까지 되었지만 現象의 力學的 說明이 어느 程度에까지 可能하냐함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檢討되지 못할만한 것은 아니다.